

격전지 기초단체장 당락 '부동층'에 달렸다

6·3 지방선거 D-1

담양·진도·여수·함평·순천 등 초접전 사전투표 열기 속 막바지 경쟁 후끈
현직 평가·與 공천 여진 표심 '꼼꼼' 본선 투표율·중도층 향배 최대 변수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기초단체장 선거 격전에서 후보 간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접전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도·무당층 등 부동층의 본투표 표심이 최종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특히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 잡음·1당 독점에 따른 민심 이반이 맞물리면서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전남·광주 지역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본투표에서도 민주당 vs 조국혁신당·무소속 후보 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광주 동구, 담양군,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곡성군, 진도군, 함평군, 광양시 등 9곳이 주요 격전지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 민주당 공천 후폭풍, 조국혁신당 확장성, 무소속 후보의 지역 기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정 정당의 조직력만으로 승패를 단정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선거 막판 부동층의 표심이 최종 당락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임택 후보와 조



“꼭 투표 참여하세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둔 1일 광주서구 평화공원에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조영권 기자

국혁신당 김성한 후보가 맞붙는다. 현직 구청장인 임 후보는 구정 연속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우고 있고, 전직 구청장인 김 후보는 변화론을 부각하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조국혁신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양당 모두 세 걸잡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담양·곡성·함평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경쟁 구도가 뚜렷한 지역으로 꼽힌다.

담양군수 선거는 현직인 조국혁신당 장철원 후보와 민주당 박종원 후보, 무소속 최화삼 후보 간 사활을 건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곡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용두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함평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남오 후보, 조국혁신당 이윤행 후보, 무소속 이행섭 후보가 맞서는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여수·광양 3개 시(市) 지역이 최대 승부처다.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인 만큼 각 정당과 후보 진영 모두 막판까지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손훈모 후보, 진보당 이성수 후보,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여수시장 선거는 민주당 서영학 후보, 조국혁신당 명창환 후보, 무소속 원용규 후보가,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인화 후보, 무소속 박성현·박필순 후보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강진·진도는 민주당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선거 막판까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강진군수 선거는 민주당 차영수 후보와 무소속 강진원 후보가, 진도군수 선거는 민주당 이재각 후보와 무소속 김희수 후

보가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다.

결국 민주당과 비민주당 진영 모두 지지층의 표심이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에서도 실제 투표로 이어지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초단체장 선거 격전에서 부동층의 표심이 중요한 이유는 후보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핵심 지지층은 사전투표를 통해 상당 부분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 충성도가 낮은 유권자들은 막판까지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현안 해결 능력, 정당 등을 비교하며 최종 선택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첫 지방선거라는 점도 중도·부동층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당만 보고 투표하

기보다 통합 이후 지역 현안 해결 능력, 지역별 이해관계 대변 역할 등을 꼼꼼히 따져볼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남·광주 기초단체장 선거가 민주당의 지역 장악력 유지 여부와 비민주당 진영 후보들의 확장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통적 지지 기반을 지켜낼 지, 반대로 비민주당 진영 후보들이 지역 내 변화 요구를 실제 득표로 연결해낼 수 있을 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격전지 상당수가 조직력만으로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성과·행정 연속성과 변화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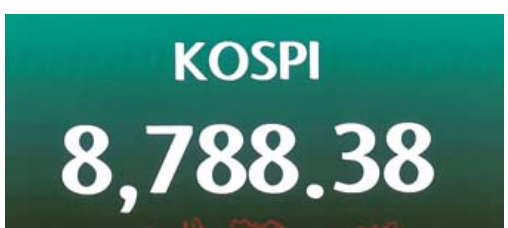
거침없는 코스피... '9천피' 눈앞

8,788.38 마감...장중 8,874까지 상승
三電, 단일기업 시총 첫 2천조 돌파

코스피가 1일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8,780 선 위에서 장을 마감하며 전대미문의 '9천피' (코스피 9,000) 고지를 눈앞에 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2.23p (3.68%) 오른 8,788.38에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9.52p (0.11%) 오른 8,485.67로 출발해 직전 거래일 (29일) 기록한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 (8,476.15)를 단숨에 넘어섰다.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탄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8,500선을 넘어



선 뒤 8,600선, 8,700선, 8,800선을 차례로 돌파했다. 장중 한때 8,874.16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오후 폭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했다. 이로써 '9천피'까지는 이날 증가 기준 211p, 장중 고점 (8,874.16) 기준으로는 125p 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코스피 상승의 주역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천조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내 증시 역사를 통틀어 단일 기업 최고 기록이다.

이처럼 거침없는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도주 쏠림 현상은 계속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179개로 200개도 안 됐지만 하락한 종목은 732개였다. 보합은 12개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팔자'도 지속됐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2조9천206억원 순매도하며 지난달 7일 이후 1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Today	
그린벨트 무단 훼손...구청 '뒷북 행정'	6면
외국인 남도관광 러시 석달간 192만명	12면
타력 주춤 KIA... '중심 타선을 깨워라'	16면

Ai시대·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균형성장으로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업과 일자리로 고르게 성장합니다.
지방이 주인공, 대한민국이 더 강해집니다!